

# 高麗 契丹戰爭과 騎兵戰術\*

李 弘 斗\*\*

- I. 머리말
- II. 고려 거란 1차전쟁과 기병전술
- III. 고려 거란 2차전쟁과 기병전술
- IV. 고려 거란 3차전쟁과 기병전술
- V. 맺음말

## 요약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북진정책은 거란의 동진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942년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자, 고려는 光軍 30만을 편성하여 대응하였다. 거란은 침략을 포기하였지만, 991년 압록강 연안에 성을 쌓고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양국은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쟁은 993년, 1010년, 1018년 세 차례 있었다. 그러나 고려가 모두 승리하였다.

고려 거란 1차전쟁은 993년 10월에 있었는데, 봉산 전투와 안용진 전투로 구분할 수 있다. 개활지에서 전개된 봉산전투는 진격과 후퇴가 자유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3-075-A00008).

\*\* 홍익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투고일 2005. 11. 18.  
심사일 2005. 11. 18.  
심사완료일 2005. 12. 5.

로운 거란 기병이 승리하였다. 거란 소손녕은 청천강을 건너 안용진을 공격하였다. 이때 고려 서희장군과 소손녕이 고구려 계승문제를 가지고 담판을 벌였다. 서희는 거란에게 사대한다는 조건으로 강동 6주를 할양받고 전쟁을 종결시켰다.

고려 거란 2차전쟁은 1010년 11월에 있었다. 전투는 통주三水砦 전투와 서경 전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삼수채 전투에서는 거란 성종이 이끈 20만 군대와 고려 강조가 거느린 30만 출정군이 맞붙은 전투였다. 강조는 휘하의 3군 중 중군은 3개 하천이 모이는 통주 서쪽에, 좌군은 부근의 산에, 우군은 성을 등지고 진을 쳤다. 초기전투는 劔車를 앞세운 강조의 군대가 우세하였지만, 작전을 소홀히 한 결과 야율분노가 이끄는 기병돌격대의 기습을 받고 패배하였다. 서경 전투는 고려의 탁사정, 지채문 두 장군과 승려 法言의 활약으로 서경 외곽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그러나 평야지대인 마탄에서는 역습을 당해 크게 패배하였다.

고려 거란 3차전쟁은 1018년 12월에 있었으며, 흥화진의 삼교천 전투와 금교역 전투로 구분된다. 삼교천 전투에서는 상원수 강감찬이 삼교천 상류 물을 저장해 두고, 강건너 쪽에 기병 1만 2천을 매복시킨 다음, 거란군이 삼교천을 건너려고 할 때 독을 터트려 크게 승리하였다. 금교역 전투에서는 강민첨과 조원이 크게 승리하였다.

주제어 : 光軍, 봉산군 전투와 안용진 전투, 三水砦 전투, 劔車, 강감찬 장군.

## I. 머리말

고려 태조는 재위기간 중 영토를 청천강 선으로 확대하였고, 광종은 청천강 이북의 가주·태주 선까지 확장하였다. 고려의 이러한 북진정책은 거란<sup>1)</sup>의 동진정책과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거란이 942년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자, 고려가 光軍 30만을 편성하고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거란은 고려 침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遼<sup>2)</sup>나라가 991년 압록강 북안에 위구·진화·내원의 3개 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킨 다음, 993년·1010년·1018년 세 차례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였다. 1차~3차 전쟁에 동원된 거란군은 5만~40만명이었고, 원정군은 대부분이 기병이었다. 반면에 고려 출정군은 전쟁 때마다 40만명이 동원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병은 5만기<sup>3)</sup> 정도였다.

거란군은 기병이 주력군이었으므로 속전속결의 단기전을 펼쳤다. 전투부대는 5백~1백명의 1隊가 기본 단위이며, 실제 전투는 10대로 구성된 5천~7천명의 1道가 주축을 이루었다. 도에 소속된 10개 대는 각각 밀집 형태로 전개하여 각 대가 교대로 적에게 파상공격을 하였다. 전투 병력은

- 1) 거란은 요하와 그 지류인 시라무렌 지역에 살던 유목민족이다. 남북조시대에는 북위·북제·고구려가 지배하였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당나라가 지배하였다. 당나라 말기 거란 추장 耶律阿保機가 거란국을 세우고 황제에 즉위하였다(916). 그는 침략전쟁을 계속하여 북중국을 강점하고(924), 발해를 침략하여 동단국을 세웠다(926). 그의 동생 耶律光德은 後晉을 멸망시켰다(946).
- 2) 거란은 부족의 호칭이면서 동시에 국가 명칭이다. 916년(궁예 3) 야율야보기가 건국할 때 처음 국가 명칭으로 사용하였고, 947년(정종 2) 遼나라로 개칭하였다. 1025년 멸망할 때까지 거란과 요의 국명은 여러 번 교체되었는데, 124년간은 거란, 94년간은 요를 국명으로 하였다(르네 그루셰 지음·김호동의 옮김, 1998 『유라시아 유목 제국사』, 사계절, 202~203쪽).
- 3) 고려 기병 5만기는 중앙군 2군6위의 2만기, 주현군의 1만 9천기, 주진군의 1만 2천기를 합한 숫자이다(李基白, 1968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51쪽·211쪽).

騎射에 능한 정예병은 후방에, 2등급의 병사는 2선에, 하등병사는 선봉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각 병사는 스스로 騎射를 연마할 수밖에 없었다. 거란 기병은 개활지에서의 기동력은 우수했지만, 산악지형의 보병진과 공성전에는 매우 취약하였다. 따라서 거란군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병의 진로를 확보하는 특수군의 철요군을 두었다.<sup>4)</sup> 한편 고려의 기병전술은 원정군의 피로와 군량·장비부족 및 지형과 기상에 취약한 사실을 고려하여 청야 수성전을 기본으로 하였다. 청야 수성전은 ‘先守 後戰’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초기전투에서는 방어에 치중하다가 적군의 사기가 저하될 때 집중 공격을 하였다. 특히 기병의 빠른 기동력은 ‘후전’의 단계에서 발휘되었는데, 적의 측면이나 후방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sup>5)</sup>

그동안 고려 거란전쟁에 대해서는 해방 이전의 일본학계가 타율적 韓國史像을 세우기 위해 이민족의 외압과 침략이라는 측면에 집중하였다. 반면에 해방 이후의 한국학계는 타율성론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항쟁과 북진정책이라는 시각을 견지하였다.<sup>6)</sup> 따라서 고려 거란전쟁은 고구려 영토를 수복하는 정당한 과정으로 인식되었다.<sup>7)</sup> 이는

4) 국방군사연구소, 1993 『한민족전쟁통사Ⅱ』, 15~20쪽; 안주섭, 2003 『고려 거란전쟁』 경인문화사, 74~87쪽.  
 5) 李弘斗, 2004 「高句麗의 對外戰爭과 騎兵戰術-특히 漢族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제68호, 5쪽.  
 李弘斗, 2004 「高句麗의 鮮卑族戰爭과 騎兵戰術-특히 前燕·後燕·隋戰爭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제75호, 1쪽.  
 6) 한국역사연구회, 1995 『한국역사입문②』(중세편), 풀빛, 102쪽.  
 7) 김상기, 1959 「단구와의 항쟁」 『국사상의 제문제』 2, 국사편찬위원회.  
 朴賢緒, 1974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李龍範, 1974 「10~12世紀의 國際情勢」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_\_\_\_\_, 1977 「高麗와 契丹과의 關係」 『東洋學』 7.  
 李基白, 1977 「高麗의 北進政策과 鎮城」 『東洋學』 8; 1980 『軍史』, 창간호.  
 趙仁成, 1983 「高麗 兩界의 國防體制」 『高麗軍制史』.  
 金在滿, 1992 「契丹 聖宗의 高麗 侵略과 東北亞細亞 國際政勢의 變趨」 (上) 『大同文化研究』, 제27집.  
 金在滿, 1993 「契丹 聖宗의 高麗 侵略과 東北亞細亞 國際政勢의 變趨」 (下) 『大同文

대의항쟁사에서 볼 때 고려의 주도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근자에 학계가 고려 거란전쟁과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 업적을 축적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북방유목민족과 관련하여 고려 기병전술을 다룬 논고는 현재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 거란전쟁을 통해 고려의 기병전술을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고려의 光軍 30만명과 출정군으로 대응한 993년 고려 거란 1차전쟁과 기병전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략한 1010년 고려 거란 2차전쟁을 통해 기병전술을 고찰하며, 끝으로 1018년 고려 거란 3차전쟁과 기병전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II. 고려 거란 1차전쟁과 기병전술

거란의 소손녕은 993년(성종 12) 10월 압록강을 도하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고려군 총사령부가 있는 청천강 남안의 안북부를 점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빠른 기동력으로 서경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강화교섭을 통해 청천강 이북지역을 할양 받는 것이었다. 이에 고려는 30만의 光軍을 방어군의 주축으로 편성하고,

化研究』, 제28집.

方東仁, 1985 「高麗前期 北進政策의 推移」 『領土問題研究』 2.

金渭顯, 1995 「高麗와 契丹의 關係」 『한민족과 북방과의 관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在範, 1998 「高麗前期의 軍事制度-中央軍組織을 중심으로-」 『韓國軍事史研究 1』, 국방군사연구소.

서성호, 1999 「고려 태조대 대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

8) 국방군사연구소, 1993 앞의 책; 안주섭, 2003 앞의 책.

각 도에 정병관을 파견하여 지방 병력을 동원하였으며,<sup>9)</sup> 시중 박양유를 상군사로, 내사시랑 서희를 중군사로, 문하시랑 최양을 하군사로 임명하였다.<sup>10)</sup> 그리고 선봉군사 윤서안을 봉산군에 투입하여 거란군의 남진을 저지한다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다.

거란 기병의 공격 전술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행군 전투이고, 둘째는攻城 전투이며, 셋째는 적과 대치할 때의 전투이다. 행군 전투는 본대의 전후 좌우 4면에 선봉군을 배치하여 적의 기습에 대비하였으며, 행군 중에 만난 적의 규모가 작으면 직접 공격하고, 규모가 크면 본대에 알려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공성 전투는 성을 고립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할 때는 성을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sup>11)</sup>

한편 고려 기병의 공격 전술은 산성을 쌓고, 다중 방어선을 형성한 다음, 적군의 사기가 떨어질 때 기병이 성문을 열고 나와 일제히 공격하였다. 여기서는 고려 거란 1차전쟁 중 봉산군전투와 안용진전투에 나타난 기병전술을 고찰하려고 한다. 다음의 사료가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① 윤 10월에 성종은 서경으로 행차하고, 그곳에서 안북부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거란의 蕭遜寧이 대군을 이끌고 봉산군을 공격하여 고려측 선봉군사인 급사중 윤서안을 사로잡아 갔다는 보고를 받고, 더 나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서희가 병력을 이끌고 봉산군을 구원하러 달려가자, 소손녕이 호언하기를, “요나라가 이미 고구려 옛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 너희 나라에서 국경을 침범하였기에, 이를 토벌하러 왔다”고 하였다.<sup>12)</sup>

9) 『高麗史節要』卷2, 成宗 12年 가을 8月.

10) 『高麗史節要』卷2, 成宗 12年 겨울 10月, “以待中朴良柔爲上軍使, 內史侍郎徐熙爲中軍使, 門下侍郎崔亮爲下軍使, 軍于北界, 以禦契丹”

11) 안주섭, 앞의 책, 83~87쪽.

12) 『高麗史節要』卷2, 成宗 12年 10月. “閏月 幸西京 進次安北府 聞契丹蕭遜寧 將兵攻蓬山郡 獲我先鋒軍使給事中尹庶顔等 王不得進 乃還 徐熙引兵 欲救蓬山 遜寧聲言 大朝既已奄有高句麗舊地 今爾國侵奪疆界 是用征討”

② 소손녕은 이몽진이 돌아간 뒤 오래도록 회답이 없자, 마침내 안용진을 공격하였다. 중랑장 大道秀와 낭장 庾方이 그들과 싸워 이겨내자, 소손녕은 감히 더 전진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항복해 오기만을 재촉하였다. 성종은 화통사로 합문사인 張瑩을 거란군의 진영으로 보냈다. 소손녕이 말하기를, “그대 말고 책임있는 대신을 보내, 다시 우리 군영 앞에서 대면하게 하라”고 하였다.<sup>13)</sup>

사료 ①은 993년 10월 봉산군 전투에서 고려군 선봉장 윤서안이 체포되자, 성종이 예정된 안북부 방문을 취소하고, 중군사 서회를 봉산군에 투입했다는 내용이며, 사료 ②는 소손녕<sup>14)</sup>이 안용진을 공격하였지만, 고려군이 거란군을 격퇴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993년 8월 동경 요양부를 출발한 거란군은 10월 압록강 보주에 도달하였다. 보주는 나루터를 통해 도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거란은 내원성을 쌓고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으므로 쉽게 압록강을 도하할 수 있었다.

거란군은 보주 남방 25리의 興化鎮(백마산성) 방향으로 1개 부대를 진출시켜 압록강 하류 연안 지역의 고려군과 내륙의 귀주성에 배치된 고려군과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압록강 연안의 고려 선봉대는 거란 기병대를 기습하여 타격을 가하였다. 이러한 고려군의 유격 활동은 거란군의 남진을 지연시키고, 윤서안의 출정군과 서북계 방어진이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게 하였다.<sup>15)</sup> 그러나 군사력이 우세한 거란군은 【표 1】에서와

13) 『高麗史節要』 卷2, 成宗 12년 10월. “遜寧以蒙馘回還 久無回報 遂攻安戎鎮 中郎將大道秀 郎將庾方 與戰克之 遜寧不敢復進 遣人促使來降 王遣和通使 閣門舍人張瑩 往丹營 遜寧曰 宜更以大臣送軍前面對”

14) 『高麗史』는 蕭遜寧으로 기록했지만, 『遼史』는 蕭恒德으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遜寧은 字이고, 恒德은 名이기 때문에 蕭恒德이라고 해야 한다(金渭顯, 1996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67쪽).

15)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90 『麗遼戰爭史』, 12~14쪽.

같이 천마 → 귀주를 잇는 통로를 거쳐 귀주 동남쪽 15리 지점의 봉산군에 진출하였다.<sup>16)</sup>

봉산군 일대는 넓은 개활지와 촌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집결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봉산군에는 아직 성을 축성하지 않았으므로 주진군은 없었고, 윤서안의 선봉군과 인근 주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먼저 소손녕은 봉산군의 주요 교통로와 구원병의 예상 접근로 및 보급통로를 차단하고, 주력부대로 고려군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원정군을 4개 부대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최초의 공격은 기동력을 갖춘 기병 1隊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윤서안의 선봉군은 기병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方陣으로 맞섰다. 즉, 선봉군의 최전방에는 참호를 파고, 참호 뒤에는 보루를 쌓았으며, 보루에 의지하여 보병들이 방진을 쳤다. 그리고 선봉군 좌우에는 기병을 배치하여 후퇴하는 거란군을 공격하였다.

봉산군 공격에 실패한 거란군은 보병이 선봉대가 되고, 기병은 좌우에서 엄호하는 전술로 2차 공격을 시도하였다. 새로운 전력을 지닌 공격부대를 계속 투입하자, 윤서안의 선봉군 전열이 마침내 흐트러졌다. 이 틈을 이용하여 거란 기병대가 순식간에 과상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고려 선봉군 진영은 함락될 수밖에 없었다.

안북부 고려 본영에서는 중군사 서희 부대를 봉산군에 투입하였다. 서희 군은 봉산군 남방 10리 지점으로 진격하여 반격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거란군은 봉산군에 본영을 설치하고, 주변의 접근로상에 기병을 배치하여 고려군의 반격에 대비하였으므로 고려군은 상황을 살피면서 거란군

16) 봉산군은 고려군과 거란군이 최초로 전투를 벌인 곳인데, 현재 평안북도 구성시 동남쪽 25리 지점 기룡리 일대로 비정된다. 봉산군은 귀주에서 정주에 이르는 교통로와 귀주에서 태주·박주에 이르는 교통로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만약 거란군이 봉산군을 확보하면, 태주성을 거치지 않고 박주 또는 가주 일대로 갈 수 있는 통로와 정주와 운전 방향으로 남하하는 통로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안주섭, 앞의 책, 98쪽).

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sup>17)</sup>

한편 거란군도 그들의 배후에 서북계 북로 군사가 배치되어 있고, 정면에는 고려 출정군이 포진하자, 불안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거란군은 봉산군에서 더 이상 남진하지 않고, 서희군과 대치하면서 항복문서를 보냈다. 서희는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고, 성종은 이몽진을 거란 군영에 보내 화친을 청했다. 소손녕은 화친에 앞서 먼저 항복하라고 하였다. 고려의 항복 회신이 늦어지자, 소손녕은 군사 행동을 개시하여 안용진을 공격하였다.

안용진은 안북부 서쪽 약 26km 지점의 청천강 하구 남안에 위치한 포구이다. 안용진은 태주와 박주를 경유하지 않고, 한 번의 도하로 청천강 남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안북부를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통로에 해당된다. 안용진 주변에는 청천강 지류 등 개활지가 넓게 형성되었으며, 강폭은 1~3km에 이르렀다. 따라서 봉산군을 출발한 거란군은 정주 → 운전을 경유하여<sup>18)</sup> 청천강 하구 북안에 이르러 부대를 분산 배치한 다음, 얼어붙은 청천강을 건너 안용진을 향해 접근하였다.<sup>19)</sup>

당시 안용진에는 작은 토성이 있었으며, 中郎將 大道秀와 郎將 庾方이 거느리는 1천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거란군의 선봉대가 浮橋를 설치하고,<sup>20)</sup> 청천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고려 출정군이 강둑에 포진하여 화살을 집중적으로 쏘아 거란군의 도강을 저지하였다.

17) 국방군사연구소, 1993 『한민족전쟁통사Ⅱ』, 32쪽.

18) 봉산군에서 안용진까지의 이동로는 봉산군에서 가주 → 운전을 경유하여 안용진에 도달했다는 견해(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90 『麗遼戰爭史』)와 봉산군에서 정주 → 운전에 이르렀다는 견해가 있다(안주섭, 앞의 책, 196쪽). 필자는 후자의 견해에 따른다.

19) 국방군사연구소, 1993 앞의 책, 35쪽.

20) 청천강 하구는 조수간만의 영향으로 유빙현상이 발생하여 완전 결빙하는 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완전 결빙 이전에는 浮橋를 설치했을 것이다.

【표 1】 고려 거란 1차전쟁 때 거란군의 진격로



### III. 고려 거란 2차전쟁과 기병전술

거란 성종은 강조의 대역죄를 고려 원정의 명분으로 삼아, 1010년(현종 1) 11월 중순 40만 군사를 이끌고 직접 고려를 침공하였다. 주요 공격로는 북계 서로로 정하고, 부대를 본군과 별군으로 나눈 다음, 별군은 북계 동로로 진출시키고, 본대는 북계 서로에 위치한 홍화진을 공격하였다. 한편 고려는 강조를 행영도통사로 삼아 총 병력 30만 명의 방어군을 편성하고, 전략적 요새인 홍화진에는 북계 도순검사 양규 등 3천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따라서 여기서는 홍화진·통주·곽주 전투를 중심으로 고려 기병전술을 고찰하려고 한다. 다음의 사료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① 현종 원년에 거란주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강조를 쳐서 홍화진을 포위하였다. 양규가 도순검사가 되어(중략) 성문을 닫고 고수하니, 거란 성종이 통주성 백성을 시켜 항복을 권하는 글을 보냈다. (중략) 홍화진 부사 이수화의 답신을 통해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병력 20만 명을 인주 남쪽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20만 명을 이끌고 통주에 이르렀다.<sup>21)</sup>
- ② 강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 세 개 부대로 나누어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한 부대는 통주 서쪽의 세 갈래 물길이 합쳐지는 지역을 거점으로 포진하고, 강조는 그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한 부대는 통주 근처에 있는 산에, 그리고 또 한 부대는 성벽에 밀착하

21) 『高麗史』卷7, 諸臣 楊規.

여 진을 쳤다. 강조는 각 부대에 劔車를 배치하여 거란병이 공격해 오면, 검차와 병력이 함께 적을 공격하였으므로 거란군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하였다. 강조는 마침내 적을 깔보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과 한가로이 바둑을 두었다. 이때 거란군의 선봉 야율분노가 상은 야율적노와 함께 三水砦의 강조부대를 격파하였다.<sup>22)</sup>

위 사료 ①은 거란 성종이 기병 40만을 이끌고 여러 차례 홍화진을 공격했지만, 실패했다는 내용이고, 사료 ②는 홍화진에서 남진한 거란군과 고려의 강조군이 청강의 삼수채에서 전투한 내용이다.

홍화진<sup>23)</sup> 전투는 1010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동안 전개되었다. 거란군은 먼저 1隊(5백~7백명)의 병력을 4개 부대로 나누어 ①용주-홍화진, ②무로대-홍화진, ③통주-홍화진, ④귀주-홍화진 간의 통로를 차단하고, 본대가 홍화진성을 포위하였다.<sup>24)</sup> 홍화진성은 130~170고지의 능선을 따라 축조했는데, 북쪽과 동쪽 및 남쪽은 급경사를 이루었던 반면, 서쪽은 산세가 낮고 능선이 완만했다. 또한 삼교천이 성의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거란군은 서쪽을 집중 공략할 수밖에 없었다.

홍화진성을 공격하는 거란군의 1차 선봉대는 보병과 특수병이었다. 보병이 雲梯, 撞車, 發石車 등의 攻城 장비를 갖고 성을 공격하면, 砲兵과 弩兵 등 특수병이 공성군을 엄호하였다. 그러나 고려 출정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성 작전은 거듭 실패하였다. 거란군은 정규군이 아닌 漢人, 해

22) 『高麗史』卷127, 列傳 康兆. “康兆引兵出通州城南 分軍爲三 隔水而陣 一營于州西 據三水之會 兆居其中 一營于近州之山 一附城而營 兆劔車排陣 契丹兵入則劔車合攻之 無不摧靡 丹兵屢退 兆遂有輕敵之心 與人彈碁 契丹先鋒耶律盆奴 率詳穩耶律敵魯 擊破三水砦”

23) 홍화진은 백마산(400 고지)이 남으로 뻗어 형성된 독립된 지역으로 천연적인 요새 지이면서 삼교천을 연하여 형성된 개활지를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24) 국방군사연구소, 1993 앞의 책, 60쪽.

인, 발해 유민 등 이민족으로 공성부대를 편성하여 공격했지만, 그 때마다 고려군은 파괴된 성벽을 신속히 복구하고, 병력을 증강함으로써 성을 방어하였다. 여기서 거란 기병은 요새지의 공성 전술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란군은 홍화진성 포위망을 푼 다음, 무로대(인주)에 20만명을 잔류시키고, 홍화진을 우회하여 통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거란군의 본대는 11월 23일 통주 서북쪽 60리 銅山 일대에 진을 치고, 통주성<sup>25)</sup> 공략을 준비하였다. 한편 고려 방어군 총사령관 강조는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공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방어군 주력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부대를 3군으로 나누어 좌군은 통주성 서북쪽 20리 청강 三水砦 상류에 배치하고, 우군은 삼수채 하류에 배치하였으며, 중군은 삼수채에 지휘본부를 두고 강조가 직접 지휘하였다. 그리고 각 부대에 다수의 검차를 배치하여 거란 기병의 돌격에 대비하였다.

거란군은 부대를 三路로 나누고, 각 路(5만~7만)가 교대로 공격하였다. 먼저 11월 24일 공격을 주도한 一路가 부대를 道와 隊단위로 나누어 청강을 도하한 다음, 청강 연안의 개활지에 기병대를 배치하고, 정면돌파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거란의 기병은 강을 건너는 중에 기동력이 떨어져 진퇴가 자유롭지 못했다.

이때 고려군은 수레체에 예리한 칼날을 꽂고 방패를 설치한 검차로 거란 기병을 집중 공격하였다. 만약 거란 기병이 검차의 공격을 피해 강쪽으로 올라오더라도 제 2선에 대기한 고려 기병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강조가 중군의 지휘본부를 강의 삼각 지점에 둔 것도 거란 기병의 이러한 취약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군의 劔車는 기병을

25) 통주성은 367m와 257m 고지를 둘러싸고 형성되었으며, 성의 둘레는 4km에 달한다. 서북계 남로의 최대 요충지로서 주변의 삼수채와 도로를 관측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하천과 개활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방어가 유리한 곳이다.

격파하기 위해 제작한 특수 무기으로써 그 기능이 탁월하였다. 따라서 삼수채 초기전투는 고려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당시 강조군의 승리는 검차와 고려 기병의 뛰어난 騎射에 기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강조군의 승리는 거란군이 정예병을 후방에 배치하고, 최하등 병사들을 선봉에 배치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거란군은 그동안의 정면 돌파에서 측면 기습작전으로 전환하고, 선봉에는 기마술과 궁술이 뛰어난 수색대 원탐난자군과 기병돌격부대 철요군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검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야간 공격을 시도하였다. 한편으로 본대로부터 증파된 대규모 거란군은 강조 휘하의 중군과 좌군, 우군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강조의 중군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고려의 좌군과 우군이 본진을 구원하러 나섰지만, 거란 기병이 고려 3군의 연결 통로를 이미 차단하고 있었다.<sup>26)</sup>

강조는 초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작전을 소홀히 함으로써 거란군 야율분노가 이끄는 기병 돌격대의 포로가 되었다. 고려군 본진이 무너지자, 좌군과 우군은 자체 방어에 급급하였다. 거란군은 고려군을 수십리까지 추격하여 3만여 급을 참수하였다. 따라서 고려 출정군은 혼란에 빠져 중군과 우군의 일부는 통주성으로 들어가 방어군을 조직하였고, 좌군과 중군의 일부는 광주로 퇴각하게 되었다.<sup>27)</sup>

거란군은 삼수채 전투에서 생포한 盧戩과 馬壽를 통주성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였지만, 고려 군민들의 완강한 항전으로 거란군의 공성작전은 실패하였다. 거란군은 고려군을 배후에 남겨둔 채 12월 6일 광주로 진출하였다.

광주성 전투는 12월 초와 12월 중순 두 차례 있었다. 12월 초 고려군은 완항령에서 군사를 매복시켜 거란군을 기습하는 전과를 올렸다.<sup>28)</sup> 그

26)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72~73쪽.

27) 『高麗史』 권4, 顯宗 世家 元年 11월 己亥; 卷127, 列傳40 康兆.

러나 12월 6일 관주성이 함락됨으로써,<sup>29)</sup> 거란군은 청천강을 건너 안북부를 공략하고, 12월 9일에는 서경 근처까지 진출하였다.

12월 10일 동북방 방비를 담당한 지채문과 동북면 도순검사 탁사정이 증원군을 이끌고 평양성에 도착하였으며, 12월 11일, 12일에는 거란의 정찰기병과 본대 기병이 평양성 외곽에 도착함으로써 양국의 기병전이 시작되었다. 다음의 사료가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12월 10일 거란 성종은 마보우를 개성유수로, 왕팔을 부유수로 삼고, 을름을 보내 기병 一千騎로 마보우를 호위케 하였다. 12월 11일 한기는 돌격 기병 2백기를 이끌고 서경성 북문으로 왔다. (중략) 탁사정은 지채문과 모의하여 휘하의 정인 등을 시켜 경기병으로 한기 등 一百騎를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로잡았다. 탁사정이 지채문을 선봉으로 삼아 나가서 을름과 싸웠는데, 을름과 보우가 패하여 달아났다. (중략) 거란 성종은 다시 을름을 보내 공격하였다. 지채문이 먼저 탁사정에게 알리고, 12월 12일 탁사정은 승려 법언과 함께 군사 9천명을 거느리고, 임원역 남쪽에서 적군을 맞아 3천여 명을 죽였다. 그러나 법언은 전사하였다. 12월 13일 채문이 다시 나가 싸우니, 거란군이 달아났다. 성안의 군사들이 성에 올라가 이를 바라보고는 다투어 나가 추격하여 마탄에 이르자, 거란군이 반격하여 성을 포위하고 거란 성종은 성의 서쪽 절에 머물렀다.<sup>30)</sup>

위 사료는 고려 출정군이 거란 기병을 상대로 서경성에서 세 번 전투

28) 『高麗史節要』 권3, 顯宗 元年 11月 己亥.

29) 『高麗史節要』 卷3, 顯宗 元年 12月 庚戌.

30) 『高麗史節要』 卷3, 顯宗 元年 12월. “甲寅 契丹主 以馬保佑 爲開城留守 王八 副之 遣乙凜 將騎兵一千 送保佑等 乙卯 丹主 又使韓杞 以突騎二百 至西京城北門 (中略) 思政 謀諸蔡文 使麾下鄭仁等 將驍騎突出 擊斬杞等百餘人 餘悉擒之 無一人還者 思政 以蔡文爲先鋒 出與乙凜戰 乙凜保佑敗走 (中略) 丹主 復遣乙凜擊之 馳告思政 丙辰 遂與思政 僧法言 率兵九千 迎擊于林原驛南 斬首三千餘級 法言 死之 翌日 蔡文復出戰 丹兵敗走 於是 城中將士 登城以望 競出逐之 至馬灘 丹兵 回軍擊敗之 遂圍城 丹主 次于城西佛寺”

한 내용이다. 첫째는 탁사정의 휘하 정인이 서경성 북문에서 거란의 돌격 기병 2백기와 전투한 것이고, 둘째는 지채문이 서경성 북방에서 거란군의 본대 을름의 기병과 접전한 것이며, 셋째는 서경성 외곽 임원역에서 고려와 거란 기병이 전투한 것이다.

먼저 서경성 북문 전투는 12월 9일 거란 정찰기병대 원탐난자군이 서경 북쪽 10리의 중랑사탑을 불태우고, 민가를 초토화시키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날 중랑장 지채문과 대장군 정충절의 부대가 성의 남쪽 일대에 진을 쳤으며,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도 방어군의 주력부대를 이끌고 서경성에 도착하여 지채문·정충절 부대와 합류하였다.<sup>31)</sup>

12월 11일 거란의 호위군 대장 을름은 한기에게 돌격기병 2백기를 주고, 북문에서 항복을 독촉케 하였다. 이때 서경성 총지휘자 탁사정은 정인에게 기병 1천여 기를 주고, 거란의 돌격기병을 기습토록 하였다. 당시 서경성 북문 앞에는 보통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주변은 산림과 경사지였다. 따라서 거란 기병은 북문의 지형과 같은 곳에서는 기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인은 一千騎의 경기병을 두 부대로 나누어 서경성 동문과 서문을 나와 한기가 거느린 돌격기병을 좌·우 측면에서 기습하였다. 이때 고려군은 한기를 포함해 일백기를 살해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포하였다.<sup>32)</sup>

다음은 서경성 북방 전투이다. 거란의 을름군 본대는 정찰기병인 돌격기병의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12월 11일에 서경성 북쪽 10리 지점의 감북산까지 진출하였다. 고려군의 본대는 서경성 북방에 병력을 배치하여 거란군의 남진에 대비하였다. 먼저 중랑장 지채문과 좌우기군 장군 이원의 부대를 감북산 협곡 동서 양면에 선봉군으로 배치하였다. 다

31) 『高麗史』卷94, 列傳7, 智蔡文.

32) 『高麗史節要』卷3, 顯宗 元年 12月 乙卯; 『遼史』卷15, 本紀15, 聖宗 統和 28년 11월 壬辰

음으로 동북면 도순검사 탁사정의 본대는 서경성 북방 10리 병현 일대에 진을 쳤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울름의 거란군이 감북산으로 진출하자, 지채문의 선봉군은 남진하는 울름의 군사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거란군이 패배함으로써 고려군은 다수의 포로와 군마, 장비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지채문과 이원의 부대는 서경성 서쪽 10리의 자혜사로 이동하여 서경성의 군대와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었다.<sup>33)</sup>

끝으로 서경성 외곽의 임원역(평남 대동군) 전투다. 거란군의 본대는 12월 12일 서경 북방 50리 순안에 이르렀다. 거란 성종은 병력을 안정역에 주둔시키고, 울름을 시켜 서경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에 울름은 5천여 기병대를 이끌고, 서경 북쪽 20리 임원역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도 서경성 밖의 지채문·이원의 부대, 승장 법언이 지휘한 승군<sup>34)</sup> 등 9천명을 이끌고 임원역 남쪽에 진을 쳤다. 양국의 부대는 정찰기병의 활동으로 부대이동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투는 탐색전보다 정면대결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초기전투는 기동력과 충격에서 앞선 거란군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이 전투 장소를 산비탈로 유인하고, 탁사정의 주력부대가 전선에 투입된 이후 고려군은 거란군 3천명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고려군도 다수의 관군과 승군이 전사하였다.<sup>35)</sup>

12월 13일 거란군은 또다시 임원역을 공격했지만 패배하였다. 고려군은 패주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은 임원역 북방 10리에 위치한 마탄에서 역습을 당해 대패하였다. 고려군이 패배한 것은 거란군의 본대와 울름의 기병대가 합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전투 장소가

33)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90 『麗遼戰爭史』, 137~140쪽.

34) 이흥두, 2005 「高麗時代의 軍制와 僧軍-隨院僧徒의 정규군 편성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72, 241~243쪽.

35) 『高麗史』 卷94, 列傳7, 智蔡文; 『高麗史節要』 권3, 顯宗 元年, 12월 丙辰.

보통강에 연한 개활지였던 것도 거란군이 승리한 주요 요인이었다. 따라서 탁사정이 도주하고, 장군 대도수가 항복한 상황에서<sup>36)</sup> 서경성은 한때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강민첨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의 방비를 강화함으로써,<sup>37)</sup> 거란군은 서경성을 우회하여 개성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sup>38)</sup>

거란군은 1011년 1월 1일 개경에 입성하여 궁궐과 민가에 불을 질렀으며, 1월 3일 고려 국왕이 친조를 조건으로 1월 11일에 회군을 결정하였다.<sup>39)</sup> 청천강 이북의 회군로는 태주 → 귀주 → 안의진 → 홍화진 → 보주의 북계 동로를 이용했는데, 북계 서로는 고려군이 장악하여 퇴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sup>40)</sup> 고려군은 1월 17일부터 29일까지 퇴각하는 거란군을 공격하여 수천명을 살상하였다.

#### IV. 고려 거란 3차전쟁과 기병전술

거란은 1012년부터 1017년까지 강동 6주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려를 여러 번 침략하였다. 그러나 강동 6주를 포기한다면, 청천강 이남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는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국지전으로 고려를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란은 전면전을 시도하였다. 이것이 고려 거란 3차전쟁이다.

거란은 1018년 11월 도통 소배압을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하여 병력

36) 『高麗史節要』卷3, 顯宗 元年 12월 丙辰.  
37) 『高麗史節要』卷3, 顯宗 元年 12월 己未.  
38) 『高麗史節要』卷3, 顯宗 元年 12월 辛酉.  
39) 『高麗史節要』卷3, 顯宗 2年 1月 乙酉.  
40) 안주섭, 앞의 책, 140쪽.

10만의 고려 침공군을 편성하고, 12월 10일에 압록강을 도하하여 보주로 진격하였다. 그리고 부대를 본대와 별대로 구분한 다음, 본대는 서북계 북로로, 별대는 서북계 남로로 진격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행영도통사 강감찬을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관으로 임명하고, 20만 8천 3백명의 출정군을 영주(안주) 일대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려 거란 3차전쟁 중 남진할 때의 삼교천 전투, 내구산·마탄 전투, 금교역 전투와 철수할 때의 귀주 전투를 중심으로 고려 거란 기병전술을 고찰하려고 한다.

1018년 12월 10일 압록강을 도하한 거란군은 삼교천 일대에서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려군과 처음 전투를 하였다. 삼교천은 홍화진성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강감찬은 홍화진성 우회지점에서 수공을 겸한 매복 작전을 펼쳐 거란군에게 대승하였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 ① 무술일에 (중략) 영주로 북상한 강감찬은 홍화진까지 진출하여 기병 1만 2천기를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시켰다. 그리고 굵은 밧줄로 쇠가죽을 꿰어 홍화진성 동쪽에 흐르는 큰 냇물을 막아놓고 적을 기다렸다. 적이 도착하자, 물고를 트고, 복병을 풀어 적을 급습하여 대패시켰다. 소배압이 주력군을 이끌고 개경으로 내려가자, 강민첨이 자주 내구산까지 추격하여 궤배시켰다. 시랑 趙元의 부대도 마탄에서 적을 공격하여 1만명의 목을 베어 죽이거나 사로잡았다.<sup>41)</sup>
- ② 신유일에 소배압은 개경에서 1백리 떨어진 신은현까지 진출하였다. 현종은 도성 밖의 주민들을 모두 성 안으로 수용하고, 청야 작전으로 적에 대비하였다. 소배압은 야울호덕에게 서신을 지참시켜 통덕문으로

41) 『高麗史節要』卷3, 顯宗 9年 12月. “戊戌 (中略) 屯寧州 至興化鎮 選騎兵一萬二千 伏山谷中 又以大繩貫牛皮 塞城東大川以待之 賊至 決塞發伏 大敗之 遜寧(排押)引兵 直趨京城 民膽迫及於慈州來口山 大敗之 侍郎趙元又擊於馬灘 斬獲萬餘級”

보내어 고려측에 자군의 철수를 통고하는 한편, 은밀히 척후 기병 3백 명을 금교역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즉시 병사 1백명을 출동시켜 야간에 거란의 척후기병을 기습하여 섬멸하였다.<sup>42)</sup>

사료 ①은 강감찬 장군이 홍화진 삼교천 전투에서 소배압을 물리쳤으며, 강민침은 내구산 전투, 조원은 마탄 전투에서 각각 거란군을 격파했다는 내용이고, 사료 ②는 금교역 전투에 관한 것인데, 현종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청야수성전으로 대응하여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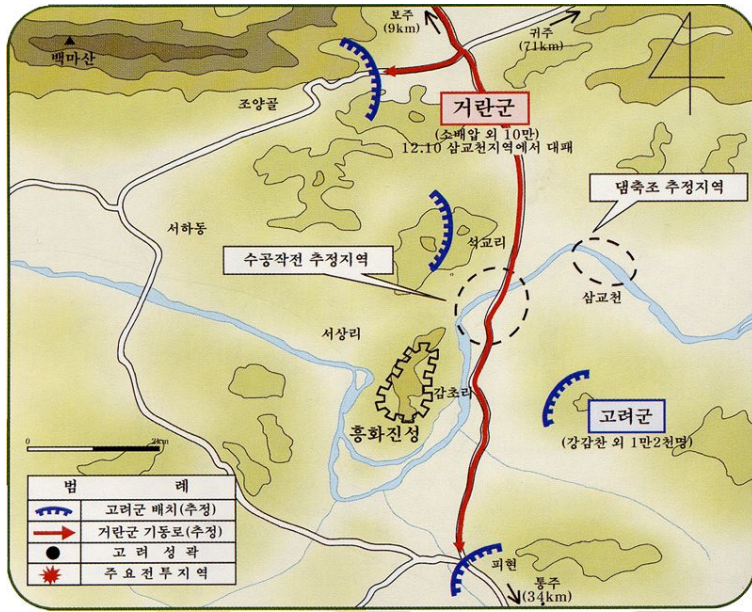
【표 2】에서와 같이 강감찬은 거란군의 배후를 습격하기 위해 홍화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삼교천 상류에 물을 저장하고, 강건너 석교리에 기병 1만 2천기를 매복시켰다. 거란군은 홍화진을 포위하고 여러 번 공격하였지만, 고려군이 성문을 굳게 닫고 대응하지 않자, 홍화진 공략을 포기하고 통주 방면으로 남진하였다. 이때 강감찬은 방어군을 좌·우군과 중앙군으로 편성한 다음, 좌군은 삼교천 상류지역에 배치하여 흙을 채운 쇠가죽 부대로 강을 막도록 하였고, 우군은 삼교천 서안 석교리에 매복시켰으며, 중군은 강감찬과 함께 삼교천 동안 중류지점에 매복하였다.

거란군의 도하 대열이 삼교천 중심부에 이르렀을 때 좌군이 쇠가죽으로 막았던 제방을 무너뜨리자 도하 대열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때 우군 소속의 기병대는 도하 대열의 후미를, 중군 소속의 기병대는 도하대열 선봉을 급습하였다. 고려 기병대의 과상적인 공격에 거란군의 도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져 대오를 수습할 수 없었다. 따라서 거란군은 보주 방면으로 패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홍화진의 기병대가 패주하는 거란병을 기습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42) 『高麗史節要』卷3, 顯宗 10年 1月 辛酉. “辛酉 蕭遜寧(排押) 至新恩縣 去京城百里 王 命收城外民戶入內 清野以待 遜寧遣耶律好德 賚書至通德門 告以回軍 潛遣候騎三百餘 至 金郊驛 王遣兵一百 乘夜掩殺之”

한편 거란군 총사령관 소배압이 주력군을 이끌고 서북계 북으로 청천강을 건너 남진하자, 강민침은 이들을 추격한 끝에 자주(자산)의 내구산에서 격전을 벌였다. 당시의 전투는 기병전으로 전개되었는데, 고려군이 승리하였다. 지형에 익숙한 고려군이 후면을 공격했던 반면, 거란군은 기습공격을 받고, 대오가 흐트러졌다. 산비탈은 그들의 장기인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게 했으며, 제한된 접근로도 거란군 패배의 원인이었다. 따라서 강민침의 부대는 다수의 거란군을 살상하거나 포획할 수 있었다.

【표 2】 삼교천 전투



\* 인용 자료 : 안주섭, 앞의 책, 166쪽.

시랑 조원은 거란군이 대동강을 도하할 때 강민침과 협공하기로 약속하고, 서경성 동쪽 50리 마탄에 진을 쳤다. 거란군은 12월 23일 대동강

상류 마탄에서 도하 작전을 개시했다. 그런데 본대 병력 중 절반이상이 도하했을 때 대동강 북안의 도하 지점에 매복하고 있던 조원의 부대가 거란군의 배후를 습격하였다.<sup>43)</sup> 조원의 부대는 대동강 상류 북안의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반면, 거란군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병력이 분산되고, 한편으로 진영이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 마침내 거란군은 1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대동강 남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금교역 전투는 1019년 1월 개경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거란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고려군 사이에 전개되었다. 소배압이 이끄는 본대는 내구산 전투와 마탄 전투에서 패배하였지만, 1019년 1월 3일 개경 북방 1백리의 신은현까지 진출하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12월 26일 이미 수도권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개경 인근지역 주민을 도성 안으로 대피시킨 다음, 개경 1백리 내외의 삼림과 가옥을 소각하였다. 그리고 평주(평산) 북방 20리의 금교역 일대에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한편 강감찬은 1019년 1월 2일 병마 판관 김종현의 기병 1만기와 동북계의 기병 3천 3백기를 개경으로 이동시켰다.

고려 현종은 청야전술을 실시해 거란군의 보급에 큰 타격을 입혔다. 소배압은 진퇴양난의 궁지를 돌파하기 위해 화의를 제기하는 한편으로 정찰기병대 원탐난자군 3백기를 은밀히 개경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적군의 기만전술을 간파한 고려군은 신은현에서 금교역으로 진입하는 접근로 좌우에 다수의 정예기병 1백기를 매복시켜 거란 척후병을 모두 격퇴하였다.

금교역에서 패배한 거란군은 개경 공략을 포기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1019년 1월 하순 고려군은 위주·연주성 전투에서 거란군 5백명을 살상하고, 후퇴하는 거란군을 계속 추격하였다. 거란군은 2월 1일 귀주성

43) 국방군사연구소, 1993 앞의 책, 116쪽.

동쪽의 동문천 벌판에 이르러 고려군과 대치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사절요』의 찬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2월 기축일에 거란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강감찬 등이 동쪽 들에서 맞아 크게 싸웠는데, 양편의 군사가 서로 버티어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 김종현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왔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오고, 깃발이 북쪽을 가리키므로 고려 군사가 형세를 타서 분발하여 치니, 용기가 두배가 되었다. 거란 군사가 패하여 북쪽으로 도망함으로 고려 군사가 뒤쫓아 쳐서 석천을 건너 반령에 이르니, 넘어져 죽은 시체가 들판을 덮고, 사로 잡은 군사와 말·낙타·갑옷·투구·병기는 셀 수가 없었으며, 살아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명 뿐이었다. 거란 군사의 패함이 이와 같이 심한 적이 없었다.<sup>44)</sup>

위 사료는 1019년 2월 고려의 출정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김종현의 부대는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패주하는 거란군을 기습하여 크게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귀주성은 분지로써 북쪽은 보주, 남쪽은 정주, 동쪽은 태주로 도로망이 연결되었다. 하천은 성의 동남쪽에 운천강이 흐르고, 운천강에서 북서쪽으로는 동문천이, 서쪽으로는 백석천이 흐르고 있었다. 따라서 퇴각하는 거란 기병에게는 절대 불리한 지형조건이었다.

강감찬은 귀주성 동문 밖의 태주로 가는 도로의 좌우측 일대에 기병대를 배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술은 강민첨·김종현 부대와 협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에 거란군은 동문천과 백석천이 갈라

44) 『高麗史節要』卷3, 顯宗 10년 2월. “己丑朔 丹兵過龜州 邯贊等 邀戰於東郊 兩軍相持 勝敗未決 金宗鉉引兵赴之 忽風雨南來 旌旗北指 我軍乘勢奮擊 勇氣自倍 丹兵奔北 我軍追擊之 涉石川 至于盤嶺 僵尸蔽野 俘獲人口 馬駝·甲冑·兵仗 不可乘數 生還者 僅數千人 丹兵之敗 未有如此時之甚”

지는 개활지<sup>45)</sup>로 고려군을 유인한 다음, 이를 협공하려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강감찬은 거란군이 벌판의 유리한 지형조건을 이용해 기병전을 사용하려는 것을 간파하고, 거란군의 동태를 관망하였다. 고려 거란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동안 안주와 정주쪽에서 김종현이 군사를 이끌고 백석천 남안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고려군은 남북 양쪽에서 협공작전이 가능하였다.<sup>46)</sup>

이때 갑자기 비바람이 남으로부터 북쪽으로 휘몰아치자, 김종현의 선봉 기병대는 백석천을 건너 거란군의 좌측을 공격하였고, 강감찬의 부대는 백석천을 건너, 선봉 기병대가 거란군의 우측을 공격하였다. 고려 거란 양군이 혼전을 벌이고 있을 때 위주와 연주로부터 강민첨 부대가 거란군의 후면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패배한 거란군은 삭주 방면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 기병은 도망하는 거란병을 귀주 북방 30리 반령까지 추격하여 거란군 대부분을 섬멸하였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고려 거란 1차~3차전쟁과 기병전술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한 결과 고려 기병전술은 淸野守城戰을 토대로 한 3단계 전술을 구사했는데, 1단계는 방어에 치중하고, 전력이 비슷해지는 2단계에서

45) 운천강에서 동문천과 백석천으로 갈라지는 지점은 귀주성의 남쪽 평지와 연결되는 개활지였다(徐日範, 1999 「徐熙가 구축한 城郭과 淸川江 以北 防禦體系」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155쪽).

46) 국방군사연구소, 1993 앞의 책, 121쪽.

성문을 나가 기습한 뒤, 3단계에 전면 공격하였다. 기병의 역할은 2단계부터 필요하며, 대열을 분산시키고 적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반면에 거란의 기병전술은 적국의 수도를 단시간에 점령하는 속전속결전술이며, 기병의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였다. 따라서 하천이 결빙하는 동절기에 전쟁을 수행하고, 병사 3명과 3필의 말이 단위 전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고려 거란 1차전쟁과 기병전술에 관한 내용이다. 거란군은 보주 남방 25리의 興化鎮으로 1개 부대를 진출시켜 고려군과 내륙의 귀주성에 배치된 고려군과의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고려 선봉대는 거란 기병대를 기습하여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군사력이 우세한 거란군은 귀주 동남쪽의 봉산군에 진출하였다. 봉산군 일대는 넓은 개활지와 촌락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집결이 가능하였다. 당시 봉산군에는 성이 없었으므로 주진군은 없고, 윤서안의 선봉군과 주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소손녕은 봉산군의 주요 교통로와 구원병의 예상 접근로 및 보급 통로를 차단하고, 주력부대로 고려군을 포위하였다. 거란군은 원정군을 4개 부대로 나누어 공격했는데, 최초의 공격은 기동력을 갖춘 기병 1隊가 담당하였다. 윤서안의 선봉군은 최전방에 참호를 파고, 참호 뒤에는 보루를 쌓았으며, 보루에 의지하여 보병들을 방진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선봉군 좌우에는 기병을 배치하여 후퇴하는 거란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거란군이 새로운 전력을 투입하여 2차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윤서안의 선봉군 진영이 마침내 함락되었다. 고려에서는 중군사 서희를 즉시 봉산군에 투입하였다. 이후 고려는 화친을 주장한 반면, 거란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고려의 항복이 늦어지자, 소손녕은 안용진을 공격하였다. 이때 거란군은 봉산에서 가주와 운전리를 거쳐 청천강하류로 도하작전을 감행하였지만, 중낭장 大道秀와 낭장 庾方의 고려 출정군이 소손녕의 거란군을

물리쳤다.

둘째, 고려 거란 2차전쟁과 기병전술에 관한 내용이다. 거란 성종은 강조가 목종을 시해한 대역죄를 원정의 명분으로 삼고, 1010년(현종 1) 11월 40만 군사로 고려를 침공하였다. 처음 거란군은 홍화진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성을 함락하는데 실패하자, 20만을 남겨두고 남하여 통주를 공격하였다. 당시 통주성에는 강조가 지휘하는 30만 출정군이 있었다. 통주 전투는 삼수채 전투와 통주성 전투로 구분된다. 삼수채 전투는 청강의 세 지류가 합쳐지는 합수목 일대에서 전개되었다. 강조는 통주 서쪽, 부근의 산, 통주성 반대 편에 3군을 각각 배치하고 부대 앞에는 劍車를 세웠다. 검차는 수레체에 예리한 칼날을 꽂고 방패를 설치했는데, 이는 거란 기병을 격퇴하기 위해 제작된 특수무기였다. 강조는 초기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작전을 소홀히 한 결과 거란 기병의 기습을 받고 패배하였다. 거란군은 비록 통주성 함락에는 실패했지만, 12월초 곽주성을 함락함으로써 청천강을 건너 단기간에 서경에 진입하였다. 서경 전투는 12월 중순에 있었다. 서경성 전투에서 고려 기병은 거란군에게 대승하였다. 서경성 앞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주변이 산림과 경사지였기 때문에 거란 기병의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결과였다. 한편 서경성 외곽 임원역 전투에서 지체문과 승려 법언이 거란군 3천명을 베는 큰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도망하는 거란군을 성급하게 추격하다가, 본군과의 거리가 멀어져 거란군의 반격으로 마침내 패배하고 말았다. 당시 거란군이 도망한 것은 고려군을 개활지로 유인하기 위한 기만전술인 듯하다. 거란군은 1011년 1월 1일 개경을 함락한 다음, 고려 국왕의 친조를 조건으로 회군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은 퇴각하는 거란군을 상대로 수천명을 살상하였다.

셋째, 고려 거란 3차전쟁과 기병전술에 관한 내용이다. 거란은 2차전쟁 때 회군 조건이었던 고려 국왕의 친조가 실현되지 않자,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고려를 네 차례 침공하였다. 그러나 국지전에서 여러

차례 실패한 거란군은 1018년 12월 3차전쟁을 일으켰다. 고려는 20만 출정군을 편성하고 영주에 주력군을 배치하였다. 강감찬은 거란군이 홍화진을 우회할 것으로 보고, 우회 지점인 홍화진 삼교천 상류에 물을 저장하였다. 그리고 강건너 석교리에 기병 1만 2천기를 매복시켰다. 거란군이 삼교천을 건너는 순간에 막았던 독을 터트리자, 거란군의 대열이 흩어졌고, 매복한 홍화진 기병이 거란군의 측면과 후면을 공격하였다. 청천강을 건너 이후의 전투는 자주 내구산 전투와 마탄 전투가 있다. 여기서는 강민침과 조원이 거란군을 격퇴하였다. 금교역 전투는 고려군과 거란군이 개경을 사이에 놓고 벌인 최대의 결전이다. 이때 고려군은 개경 부근의 민호를 성내로 이주시키고, 청야 수성전술을 사용하여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금교역에서 패배한 거란군은 개경 공략을 포기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강감찬은 퇴각하는 거란군을 공격하여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遼史』

- 김상기, 1959 「단구와의 항쟁」 『국사상의 제문제』 2, 국사편찬위원회.
- 李基白, 1968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 르네 그루쎈 지음 · 김호동의 옮김, 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 朴賢緒, 1974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李龍範, 1974 「10~12世紀의 國際情勢」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77 「高麗와 契丹과의 關係」 『東洋學』 7.
- 李基白, 1980 「高麗의 北進政策과 鎭城」, 『軍史』 창간호.
- 方東仁, 1985 「高麗前期 北進政策의 推移」 『領土問題研究』 2.
- 김재홍, 1988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0 『麗遼戰爭史』.
- 국방군사연구소, 1993 『韓民族戰爭通史Ⅱ』(高麗時代編), 64쪽.
- 金在滿, 1993 「契丹 聖宗의 高麗 侵略과 東北亞細亞 國際政勢의 變趨」  
(下) 『大同文化研究』, 제28집.
- 한국역사연구회, 1995 『한국역사입문②』(중세편), 풀빛.
- 金渭顯, 1995 「高麗와 契丹의 關係」 『한민족과 북방과의 관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渭顯, 1996 『遼金史研究』, 裕豊出版社.
- 이재범, 1998 「고려전기의 군사제도-중앙군조직을 중심으로」 『한국군사사연구1』, 국방군사연구소.

- 서성호, 1999 「고려 태조대 대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 金在滿, 1999 『契丹·高麗關係史研究』, 國學資料院.
- 안주섭, 2003 『고려 거란전쟁』, 경인문화사.
- 李弘斗, 2004 「高句麗의 對外戰爭과 騎兵戰術-특히 漢族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제68호.
- 李弘斗, 2004 「高句麗의 鮮卑族戰爭과 騎兵戰術-특히 前燕·後燕·隋戰爭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제75호.
- 이흥두, 2005 「高麗時代의 軍制와 僧軍-隨院僧徒의 정규군 편성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72.



## Abstract

### Koryo's(高麗) Wars against Georan(契丹) and Its Cavalry Tactics

Yi, Hong-Du

Inheriting Koguryo, Koryo promoted northward expansion policy. Koryo's northward expansion policy inevitably collided with Georan's eastward expansion policy. As Georan invaded Koryo in 942, Koryo mobilized the Gwang Army(光軍) of 300,000 to confront the invader. Georan gave up the invasion, but it again constructed walls and deployed its army along the Arok River(鴨綠江) in 991 and the two countries rushed into a war again. There were three wars in 993, 1010 and 1018 and Koryo won all of them.

The first war between Koryo and Georan occurred in October 993, which was divided into the Bongsan(蓬山) Battle and the Anyungjin(安戎鎮) Battle. Because the Bongsan Battle was fought in an open field, Georan cavalry, which was free in advancing and retreating, defeated the Koryo force. So Son nyeong(蕭遜寧) in Georan crossed the Cheongcheon River and attacked Anyungjin. At that time, General Seo Hee(徐熙) in Koryo negotiated with So Son nyeong over the succession to Koguryo and, on the condition of submission to Georan, he bought the war to a conclusion and was ceded the six provinces on the east of the Arok River.

The second war between Koryo and Georan was in November 1010, which was divided into the Samsuchae(三水砦) Battle at Tongju(通州), and the Seogyong(西京) Battle. In the Samsuchae Battle, a force of 200,000 led by King

Seongjong of Koryo collided with 300,000 soldiers under the command of Gang Jo(康兆) in Koryo. Gang Jo, who commanded three armies, pitched the camp of the central army on the west of Tongju where three rivers merged, the left army at a mountain near Tongju, and the right army with the wall in the background. Gang Jo's force with sword chariots(劔車) at the head was predominant at the beginning of the battle but, as it was neglectful of strategies, the army was defeated by the surprise attack of a cavalry raiders led by Yayulbunno(耶律盆奴). At the battle outside Seogyong, however, General Tak Sa jeong(卓思政) and Ji Chae mun(智蔡文) and Priest Beopeon(法言) brought a great victory to Koryo but, again, Koryo army was severely defeated by the counterattack at Matan(馬灘), a plain area.

The third war between Koryo and Georan broke out in December 1018, which was divided into the Samgyocheon Battle at Heunghwajin(興化鎮) and the Geumgyoyeok(金郊驛) Battle. In the Samgyocheon Battle, General Gang Gam chan(姜邯贊) dammed off the flow of the Samgyo River, ambushed 12,000 cavalry soldier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river, and burst the dam when the Georan force was going to cross the Samgyo River. This tactic ended up in a sweeping victory. In the Geumgyoyeok Battle, Gang Min cheom(姜民瞻) and Jo Won(趙元) beat off Georan forces.

Key Words : Gwang Army, the Bongsan Battle and the Anyungjin Battle, the Samsuchae Battle, sword chariots, General Gang Gam chan.

к с і